

# 朝鮮, THE MORNING CALM

15호

1891년 9월

## □ 서지사항

- 제목 : 〈朝鮮, THE MORNING CALM〉 15호
- 발행인 :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
- 발행지 : 영국 런던
- 발행일 : 1891년 9월
- 페이지수 : 20(표지 포함)

## □ 목차

Cover	(i)
The Mission	ii
Hospital Naval Fund	ii
Special Fund	iv
St. Peter's (Kilburn) Association For Foreign Missions	iv
Education Fund	iv
The Bishop's Letter (주교통신, 1891년 7월 2일에 원산에서 보낸 코프 주교 서신)	(97)
Note (알림)	99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99
The Korean Exhibit at the Royal Naval Exhibition (해군 전시회 중 조선선교회)	101
Mission House of the Resurrection by Richard Small (부활의 집 선교하우스, 스몰 사제)	102
The Spirit of Missions	104
Education Fund	107
Missionary Intercessions and Thanksgivings	v
Associations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vi
Sketch map of COREA & adjacent Countries (지도)	viii

## □ 해제

###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가 런던에서 펴낸 잡지 〈모닝칼〉 15호

코프 주교(The Right Rev. Charles John Corfe, 한국명 고요한)가 트롤로프 사제(The Rev. Mark Napier Trollope, 훗날의 3대 주교, 한국명 조마가)와 의논한 끝에, 직접 원산에 가서 둘러보고, 땅을 살 수 있는지도 알아본다. 조선선교회는 개항장 3곳 모두에 관해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중이다.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해군 전시회의 조선 관련 전시품 품목이 늘어난 것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스몰 사제가 의사 와일스의 일을 소개하면서 조선사람을 진료하고 돌보는 것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적었고,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교육기금 [Education Fund] 기사에는 코프 주교가 졸업한 건지(Guernsey) 섬의 엘리자벳 콜리지 (Elizabeth College)의 학장인 페니(W. C. Penny)가 쓴 글이 실려 있는데, 이사회에서 조선 선교를 위한 교육기금 모금에 동참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다.

### The Bishop's Letter - 주교통신

여러분은 제가 제물포도 서울도 아닌 곳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에 놀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쯤이면 지도가 마음에 들어와 있을 것이므로 이 글을 쓰는 항구 이름쯤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트롤로프 사제가 제가 있는 곳인 제물포로 방문하였는데, 여러 가지 의논 끝에, 제가 직접 부산과 원산에 가서 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증기선 중 블라디보스톡행 배편이 있는데, 그 배가 부산과 원산을 거쳐 갑니다. 그러기 위해 즉시 여행을 결행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우리가 이 도시들에서 차츰차츰 건물을 짓고 일을 벌여나가자면 땅이 있어야 하므로, 작은 땅이라도 살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입니다. 요새 외국인이 땅을 사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둘의 생각에는 서신을 주고받으며 알아보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보고 조사하는 게 나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에서 이틀 체류하는 동안 한국 세관원에서 일하는 헛트 씨 부부가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외국인 거주지가 될 곳 중에서는 처분할 땅이 거의 없으며, 조선인과 일본인과 중국인 사목에 두루 다 편리한 센터를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산은 일본 식민지로, 매우 번창하고 바쁜 곳입니다. 세관이 이곳에 있으며, 부산으로 오고 가는 모든 무역은 일본 타운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인 외에는 이곳에서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매우 적절한 부지를 보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이 판매를 허용한다면 저는 일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

36시간 만에 우리는 원산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조선의 북동쪽 항구로 시베리아에서 불과 200마일(320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과 원산 사이의 해안선은 매우 가파르고 산이 많아 이 나라의 서부와 남부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거주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해안 가까이 있는 푸른 산들은 험준한 산맥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이 산맥은 척추 같기도 한데, 이 나라를 관통하며 북에서 남으로 뻗어 있습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이 적절하구나 싶는데, 코리아(Corea)는 카올라이(Kao Li), 곧 높은 산의 나라[高麗]라는 말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이 잡지를 매달 읽는 여러분은 코리아라고 하지 않고, 이 나라 사람들이 아는

중국식 이름 그대로 '조선(Cho Sen)' 또는 '모닝캄'이라고 합니다.

원산은 부산보다 훨씬 더 환하고 안전한 항구입니다. 여기서도 일본 식민지가 이곳의 비즈니스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인 거주지에는 약 12,000명이 있는데, 원산만 남쪽으로 2마일(3.2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일본인 거주지 바로 바깥쪽에 세관 업무를 수행하는 유럽인 5명 중 4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행정관인 오이센 씨(Mr. Oiesen)가 저를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부산의 어려움은 적당한 땅을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여기서의 어려움은 다 똑같이 적합해 보이는 많은 땅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

(……) 이 두 항구를 방문한 결과 보고할 만한 명확한 정보는 없지만 저로서는 지금까지 수행한 작업에 만족합니다. 일본 기선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로 오늘 부산으로 갑니다. 저의 이 편지를 나가사키로 보내줄 것이고 거기서 또 영국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벗,

✧ C. J. 코프.

#### The Corean Exhibit at the Royal Naval Exhibition - 해군 전시회 중 조선선교회

<모닝캄> 6월호가 인쇄된 뒤 이 전시회에 몇 가지 흥미로운 품목이 추가되었음을 알린다.

1. 1891년 5월 14일자 '주교통신'에서 해군 군종 사제들이 선물한 인쇄기로 드디어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설명한 바 있는데, 그 기계로 인쇄된 '감사의 편지'. 부영사 제임스 스킵의 《English-Corean Dictionary》(영한사전) 견본 페이지도 있는데, 이는 후에 런던의 동양학 출판사로 보내질 것임.

서울의 인쇄소 사진-피크 씨와 와이어스 씨가 일하는 곳

2. 조선사람들과 풍속을 설명하는 물품들-주교가 보내옴
  - (1) 한지로 만들어 옷칠하고 색칠한 큰 그릇-발굽이 셋 달려 있음
  - (2) 조선에서 그려진 지도
  - (3) 조선의 이야기책
  - (4) 조선 상인의 계산기인 주판
  - (5) 서울 관청에서 만든 동전. (당오전을 가리키는 듯)
  - (6) 귀중품 보관용, 허리춤에 차는 주머니
  - (7) 담배 주머니
  - (8) 담배 파이프. 남녀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모양의 것.
  - (9) 조선의 숟가락
  - (10) 조선 신사들이 쓰는 안경.



### 아침생각

코프 주교는 원산이나 부산을 일본 식민지로 표현하고 있다. 외국에게 땅을 내어주고 그 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거주하도록 하며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지역이므로 식민지라고 표현하는 듯하다. 개항장 원산이 그려져 있는데, 조선사람의 모습이나 목소리는 없다. 한국인이 읽으면서는 비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 런던에서 열린 해군 전시회 중 조선관에 전시된 품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19세기 말엽 영국을 비롯 유럽에서는 동양에 관한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신화나 민담 등을 수집해 출판하는 일이 꽤 인기 있었다. 건전하고 순수한 관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호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때 서양인 속에 형성된 동양 관련 생각이나 이미지들이 오늘날 까지 상당 부분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